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독서 : 사도10, 34a, 37-43

제 2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순정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 3, 1)

죽! 부활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 나셨다.”
(루가 24, 5-6)

다시 되살아 나자구나

문치상(비오)

■ 가슴으로 믿자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뭘 그렇게 찍었쌌느냐'고 핀잔하던 친구가 교리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다.

십자가를 그으려면 이마와 가슴 그리고 양어깨를 오른손가락이 네 번을 찍은 후 합장하게 된다. 교리 첫시간이 끝나자 그는 '찍는 것이 말여 성호경이더만, 난 하도 봐싸서 쉽드만'.

난생 처음 미사에 참여한 그의 첫마디는 '앉았다 섰다 헛갈리더만' 두 번째 얘기는 '뿔이 그리 외는 게 많아' 였다.

나이 들어서 월까 모르겠다던 그가 영세받은 지도 꽤 오래됐다.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등등 거가다 이제는 레지오활동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당에 나타나질 않았다. 이유는 '앵무새 노릇이 싫다'는 것이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분히셨으며, 고성소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입만 벌리면 술술 단숨에 굴러나오는 사도신경이다. 그 내용만 믿으면 신앙인이고 신앙고백으로서는 더 좋은 기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입으로만 믿었을 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암기와 낭송의 습관이 기도문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첩언도 곁들였다. 그분의 부활을 자축하는 오늘, 그분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사도신경을 가슴으로 읽어보자.

■ 지자제 부활의 의미

우리는 어젯밤 성세 서약 갱신을 했다. 마귀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허례허식도 끊어버린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재미로,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유 등으로 마귀와 공존하는 신도가 많다. 온갖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산

자 중에서 찾지 않고 죽은 자 중에서 찾는다.

부활이라는 문자가 가장 적절하고 피부에 와 닿게 사용된 것이 지방자치제다. 군사정권에 차압당했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차치제 부활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비록 절름발이이긴 했지만 많은 걸 경험했고 장단점을 발견했다.

금년 6월27일 4대선거가 끝나야 완전 자치제의 부활은 이룩되는 셈이다. 그 동안 의원들은 주민 복지나 생활자치를 위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는지 꼭 짚어 볼 일이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제 신중한 선택이 남아있다. 누가 바르고 그른가, 누가 성실하고 불성실한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풀이 무더기표가 또 필요한가,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겸손한 봉사의 참뜻을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렵고 어두울 때 분연히 정의를 위해 앉았던 우리가 아니던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슬기와 지혜가 모아져 실행될 때 사순시기를 보낸 삶의 가치가 살아나리라 믿는다. 마귀와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소서.



숲정이 산책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1995년 부활절 메시지

더욱 바르고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장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만물이 죽은 듯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가 기적처럼 깨어나 생명의 축제를 벌이는 새봄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자연 속에 움직이는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삶, 영원한 생명의 길을 더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년에 비해서 한결 더 짙은 감회로 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1월10일부터 19일까지 마닐라에서 교황님을 모시고 아시아 주교회의의 제6차 총회가 열린 바 있는데, 그때의 주제가 부활 신비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인류의 2/3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시고 활동하셨던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생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에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추진하는 하느님 나라 건설 사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심으로써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였고, 그에게 만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적혀 있는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 창조역사를 알게 되고, 원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와 협력관계

를 이루며 살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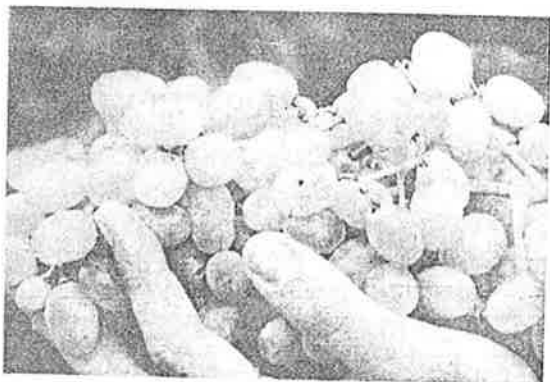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과 그 주변의 세상이 본래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고발하고, 형제끼리 죽이며, 이웃 사람들이 반목하고 민족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본래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 먹거리를 대주고, 부드러운 공기와 시원한 물로 원기를 회복시켜 주던 자연도 인간에게 반발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지며 땅은 척박하게 되어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야 겨우 연명할 만큼의 난알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공장의 폐수처럼 인간 세상과 자연계 전체로 번져가서 생명의 세계를 검은 죽음의 그물로 휘감았습니다. 창세기 처음 부분(1-11장)은 이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피조물은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로마 8,21)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죽음의 그물에 걸려 팔닥이고 있던 전창조계와 인류를 그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빼내어 살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상된 생명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루가 7,22)

2. 그런데 오늘날 인간세계는 다시 한 번 창세기에 그려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쉽게 서로를 고발하여 갈라서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며 자식 또한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가족계획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살해하며, 일가 친척끼리 죽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생명을 중대하게 손상시킵니다. 자연 또한 거대한 세력으로 인간에게 대들어,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쏟아져서 인명과 재산을 휩쓸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농사는 물론 당장 마실 물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들이 온 나라를 오염시키고 그 일부는 지하수맥에 까지 흘러들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공장 굴뚝에서 나온 유독 가스마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의 생명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천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남아있는 생물들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회정의, 질병의 치료, 교육,
환경보존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빵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가리키고
그것을 알려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도 점점 그 자리를 빼앗겨 죽음의 낭떠러지쪽으로 밀려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 개인과 집단의 생명을 위협하고
병들게 하며 줄어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들이 요즈음 우
리의 삶에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만을
따로 놓고 볼 때에도, 모태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갓 태어난
생명, 어린이, 병약자를 거쳐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명을 가법게 취급하는 풍조와 형태들이 점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사회와 교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울
그 토대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의 맞은 편에는 희망의
빛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개인과 단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확산되고, 가난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과 법이 제정되고,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을 좀
더 인간적이고 참된 의미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전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형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는 일에 많은 사
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창조물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느님의 금령(禁令)과 "남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은, 우선 육체적 생명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손상된 지체를 치유해 주
셨고, 배고픈 백성에게 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린 폐기물이 식수원에 흘러들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기를 들고
남의 몸에 직접 상처를 내는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
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느님의 금
령과 남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적극적인 명령을 어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은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실천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상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유와 눈발에서
연울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다는 비할 수 없이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잡초의 생명
처럼 인젠가는 스러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
시러 오셨고, 먹어도 먹어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지는
못하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시기 위
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리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운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48-51)

당신의 목숨을 바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으로 이 세상에 오
셨습니다. 사회정의, 질병의 치료, 교육, 환경보존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빵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가
리키고, 그것을 알려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번 아시아 주교회의의 제6차 총회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인나)
이용실·이용화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LG(금성)에어콘 총판

·에어콘, 환온합습기, 공기정화기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
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0652)252-3398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복종합전시장

박명근(공사가)
장정신(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75-0523~4
FAX (0652)75 0524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그리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삶의 구석구석과 도사리고 있는 반 생명적인 풍조와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졌습니다.

“복음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의지할 곳 없는 이들, 압박과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이들, 문화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대단히 중요하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뛰어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가 현 세생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정도를 훨씬 벗어난 높이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부요한 이도 가난한 이도, 유대인도 희랍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서(로마 5, 12 참조) 예외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 모두가 죄인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죄악이다. 따라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세계 안에 나타나는 온갖 무질서와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 이것이 창세기 첫 부분에서 시작하여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형제간이 갈라지며 자연이 인간을 향해 반발하게 된 사대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의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몸을 숨기기 시작하고, 것처럼 자기 내부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잃은 인간은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나아가 해를 끼쳤으며, 그렇게 해서 죄악의 역사는 끝간 데를 모

르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죽음으로 치달은 이런 사태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건의 핵심이자 불행의 궁극 원인이었던 죄악을 첫번째 공격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죄악의 세력을 상대로 한 그 투쟁에서 결국 이기셨고, 그래서 그 악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인간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 구원의 사명을 끝마칠 때 쯤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4.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의 이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반생명적인 풍조와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



요십이 (1129) 김병오



경축
성전건립기금마련바자회
 “맛있게, 기쁘게, 하나로”
 일시: 4월27일~30일(4일간)
 장소: 어양동 천주교회
 ☎ (0653) 831-4050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 한)
 양 진 회(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코아지업사
 벽지, 바닥재, 카페트, 각종비닐 커튼장식, 블라인드, 버디칼 (출장상담 환영)
 양 철 성(요 셉)
 양 철 수(마르첼리노)
 ☎ (0652)224-7066
 호출 012-676-3642

(주) 한국 삼배 전복총판
 최고급 전복수/Q마크회득원단제품 삼배양말/무좀예방,땀흡수타월,부위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앞
 ☎(0652)212-6639,7046
 호출기 012-682-6631

예수 그리스도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남자 · 일시: 4월29일~30일 오후 4시 · 장소: 예수고난회 광주 일곡동 수도원 · 회비: 3,000원 · 문의: (062)571-5004, 8004(준비를 위하여 참석 여부를 미리 연락바랍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 모임
 · 일시: 4월23일 오전 10시 (매월 넷째주일)
 · 장소: 광주 광천 티미널 (일반차량)주차장
 · 문의: ☎(0685)92-6840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평신도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번 아시아 주교회의 제6차 총회에서 채택한 특별 메시지 가운데 사목자들과 신앙인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시된 몇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 일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제, 수도자, 본당 및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원, 선교 및 신심단체 회원,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제시된 아시아 주교회의의 결정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그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의 가정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반 생명적이고 반 가정적인 태도와 가치, 정책과 행태들이 아시아의 가정들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생활방식이 가정의 참된 인간적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낙태, 불임수술, 피임, 태아의 성별감정과 그에 따른 문제, 유전자 조작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명의 지성소인 가정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가기 위하여 교회가 가르쳐 온 대로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2) 여성과 어린이들이 흔히 차별대우, 착취,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여자 어린이의 착취가 가증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들 역시 노동 현장과 관광업계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성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과 행태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공동체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젊은이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거듭해서 젊은이들이야말로 교회와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전파와 사회번혁에 필요한 열성, 이상,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좀더 풍요한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젊은 남녀에게 사목적

배려를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4) 환경보존 문제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사목적 관심에서 소홀히 될 수 없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점점 더 심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 환경체계가 경제적 이득이라는 제단에 희생되어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백성들을 위해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환경을 점점 더 파괴해 들어가는 정책과 행동들을 저지시키고, 지구와 거기 존재하는 일체의 생명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5) 자기 고장을 떠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가난한 이들의 집단이다.

그들 중에는 살기 위해서 국내나 국외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해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것과 살 터전을 찾아 가난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건너간 이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가정을 두고 와서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정확히 보고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에도 우리는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평신도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치이기신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실 것을 믿고 또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75-5411
호출기 012-682-0046

(유) 우도건설

온실설치공사(유리,PC,비닐자동화),
저온저장고,축사,집하장
소근 호(스테파노)
☎(0652)243-6866,241-2546
호출기 012-681-0377
휴대폰 011-671-0377

동산동 이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남태(바오로)
김윤태(돈보스코)
이리시 동산동 중앙호텔 옆
☎(0653)842-2604~5,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신장개업

이리 삼부가스

조정숙(세실리아)

영등동 273-7번지

☎(0653)52-3082,857-6673

교구소식

-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때 : 4월23일(일)
 - 장소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 축! 건진
 - 때 : 4월23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전동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 교구청 휴무
 - 때 : 4월17일(화)
 - 부활절 관계로
-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4월23일(일) 오전7시
 - 집결 : 가톨릭센터
- ❖ 구역(반)장 연수
 - 4월19일(수) 오전10시 금암동 성당, 동·서 전주지구
 - 4월20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남·북 전주지구
 - 4월21일(금) 오전10시 나운동 성당, 군산 지구
- ❖ M.E. 55차 주말
 - 때 : 4월21일~23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장애인 체육대회
 - 때 : 4월23일(일) 오전10시
 - 장소 : 해성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때 : 4월23일(일)
 - 장소 : 평화동, 서신동 성당
- ❖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제3차 임원 연수
 - 때 : 4월22일(토) 오후3시
 - 장소 : 해성중·고등학교
- ❖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때 : 4월17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교도소부활절 미사 및 세례자 환영식
 - 때 : 4월19일(수) 오후1시30분

❖천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 때 : 5월5일(금)
 · 장소 : 전주해성중·고등학교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 ❖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미사
 - 때 : 4월22일(토) 오전10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 ❖ 축! 영명
 - 21일(성 안셀모) 김윤섭 신부님

■ 권해드리는 책 ■

· 신앙인의 사색
 이병호 주교/3,400원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이병호 주교님의 이 글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의 디딤돌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일치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사도행전
 정태현 역주/6,500원/분도
 신약성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루가의 두 저서 제3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구는 예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려 했던 초대 교회의 체험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장바구니를 다시 봅시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왔던 비닐봉지나 포장지를 이제 는 받아 오기가 꺼림직하다. 비닐이 분해 되는데 기간이 300~50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비닐 봉지가 때로 바람에 날리면 바다 동물들이 삼키 거나 거기에 걸려 죽게 된다.
 비닐 봉지에 사용되는 색소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들어있다. 불에 소각할 경우에는 공기중에 중금속이 퍼져

나오게 된다.
 물건을 살때 봉지가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개의 봉지를 덜 사용하면 1년에 수백만개가 절약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장바구니를 다시 드는 것이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지구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큰 바람이 어디 있을까?

축! 개업

에 덴 사

도장, 도무인, 자동명함, 마스타, 청철장, 붓글씨, 각종인쇄, 스티카
 김 영 일(크리스토 폴)
 동부시장 사거리(이동통신앞)
 ☎ 88-2668
 호출기.012-671-4590

회우회

삼일꽃꽂이 교실

성전 꽃꽂이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김 진 순(모니카)
 ☎ (0652)211-6544

사랑의 사과나무 주주를 모십니다.

1주당 50,000(6~7상자)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겸 전원의 휴식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 경 임(에스델)
 김계서 봉남면 회성리 116번지
 ☎(0658)45-0815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기동 파출소 옆
 ☎84-6085, 223-5823

덕 신 지 업 사

지류,장관류,카펫류,기타비닐류 염가판매
 · 일류 도배공 대기
 · 정밀시공·전화상담 환영
 원 요 안(요 한)
 서 문 숙(엘리사벳)
 ☎(0654) 42-3736
 445-3736

삼 일 약 국

김 양 중(라파엘)
 ☎ (0652)211-525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예수 부활 대축일: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1. 부활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부활 구역 성가발표회: 오늘 장엄미사
3. 초등부 은총시장: 오늘 후 1시30분
4. 제2차 구역(반)회장 연수: 20일 전 10시 덕진
5. 비품구입 특별헌금 신인액: 소개-116만원, 누계-1,675만원
봉헌액: 본당신부님, 이동근, 이영관-각 30만원, 신경철, 이영철, 이영나, 한석규, 장성복-각 5만원, 정선례, 양란순, 장점순, 익명-각 3만원, 신미진, 익명-각 10만원, 소정남-9만원, 박매월, 김정옥-각 2만원, 국중배-1만원, 문형인-20만원. * 소개: 171만원 * 누계: 983만원
6. 모임: ①대건회-16일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9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23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7. 다음주일(23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8. 폐지저당품, 성미주머니 사무실에 내주세요.
9. **축! 혼인**: 23일 전 11시30분 신랑-윤창선(요한)군 신부-엄효진(베로니카)양
23일 후 12시30분 신랑-박하영(요)군, 신부-고미영양
10. 금주 청소: 중노9, 10만. 차주 청소: 중노11, 기린봉1만
□ 지난주 봉헌금: 1,051,880원 □ 교무금: 1,758,000원
□ 2차 헌금: 430,25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송년홍
사목회장 황길평

1. **축!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대미사 후 나눔잔치 있습니다.
2. **축! 영세**: 새 형제·자매들(18명) 축하드립니다.
3. 다음주일에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4. 구역반장 연수회: 20(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5. 모임 안내: ①성모회-20일(목) 오전 10시 ②빈첸시오회-22일(토) 오전 10시
6. 어린이 미사 봉헌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냅니다.
7. 사순절 폐지저당품을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8. 성서와 함께 서적 전시회 및 홍보 활동: 다음주일(23일)
* **축! 결혼**: 23일 오후 2시
신랑-김영길(안토니오)군, 신부-허미자(안나)양
성당 청소: 4월22일(토)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김홍현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육남,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유춘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12,100원 □ 교무금: 1,189,500원
□ 감사헌금: 100,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축! 예수 부활**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1. 모임: ①자모회, 새 형제사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성가대-다음주일 ③꾸르실로 율리아-22일(토) 저녁
2. 부활절 행사: ①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오늘 10시30분 ②친교의 시간 및 구역별 율리아 ③주일학교 미사 및 은총시장-오후 3시
3. 사제 양성 후원회비 정성껏 납부합시다(세대별 매월 1,000원 이상)
4. 주님, 고 김완준(베드로)에게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5. 김준호(도마) 새 사무장: 수고하시겠습니다.
6. 페루 선교사 후원 2차헌금: 다음주일(23일)
7. 김애덕 클라라 수녀님 피정: 17일(월)~24일(월)
8.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최경림 가정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김갑자
봉헌-양주태 가정
9. 제대꽃 봉헌: 임 세시리아, 정찬수, 김영신-3만원, 이순열, 안아가다-2만원, 최 안젤라-1만원
□ 지난주 봉헌금: 410,440원 □ 공동2차: 179,190원
□ 교무금: 9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1. 금주 모임 안내: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2. **축! 세례식**: 4월29일(토) 오후 7시, 김중교리: 24일~28일 오후 7:30분, 저녁미사후 강당 * 봉사교리자는 23일(일) 오전 11시까지 수료증 지참 강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3. 견진 안내: 5월6일(토) 오후 4:00시, 대상자는 사무실로 접수
4. 성령묵상회 안내: 5월1일(월)~4일(목) 오후 8시~10시 사무실로 신청서 접수
5. 청소 안내: 금주-상아담, 차주-평화의 모후
6. 자모회 숙제는 날: 4월25일, 무궁화탕 집결(낮 12시) 장소-대성리, 준비물-칼, 바구니, 도시락
7. 집입을 환영합니다: 최순덕(테레사) 수원 평화동 ☎83-2882 양복래(세시리아) 노송동 ☎231-4739, 정윤남(마리아) 서울 상봉동 ☎85-7874, 강행운(질베르도) 평화동 ☎83-9834, 유치복(루도비코) 평화동 ☎88-1696, 하용운(마르크) 입실 ☎231-4693, 송상호(마로) 진안 ☎83-9692, 윤귀례(테레사) 진동 ☎84-9768
8. 성전 보수헌금 내신 분: 김한기(안드레아) 300,000, 최혜임(사라) 500,000, 김희철(미카엘) 250,000, 신오철(요한) 250,000, 김미카엘 300,000, 채관석(요셉) 100,000, 김성수(비오) 100,000, 김중호(프란치스코) 100,000, 한상희(세실리아)의 9명 380,000, 신입하신 분: 리창윤(마르크) 100,000, 하정만(시몬) 100,000, 계: 2,280,000.
□ 지난주 봉헌금: 1,029,650원 □ 교무금: 523,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영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예수부활 대축일: **축! 예수 부활!** 알렐루야!
1. 금주: ①바리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2. 성화회: 17일(후 6시)
3. 견진대상자 성령세미나: 17일~22일(오후 7시30분) 견진성사 및 미사(주교님 집전): 23일 10시30분
다음주일은 견진미사와 새벽미사만 봉헌
4. 빼앗따회: 19일(전 11시)
5. 성모회: 19일(전 11시)
6. 구역반장 2차 연수회: 20일(전 10시) 덕진성당
7. 본당신부 휴가(4월19~5월3일): 김병열(베드로) 신부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8. 차주: ①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②견진성사(전 10:30) ③성마리아Co.(후 2시) ④교무금 납부주일
* 지난주일 정원수 이석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66,6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경 예수 부활 축** "이 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출몰을 추자."
1. 구역 반회회장 연수: 20일 전 10시, 덕진성당, 개인출발, 불참자는 본당 신부님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 장애인 체육대회: 23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해성중·고 실내체육관-많은 관심과 참여를...
3. 예비자 입교식: 19일 저녁 아버지미사중, 입교 신청하신 분과 인도자는 동반해 주십시오.
4. M.E 55차 감습회: 21~23일, 천호 이생구(율리아노) 박선희(안젤라)부부, 송하중(아오스딩) 최선례(베로니카)부부
5. 반미사: 저녁 8시, 18일 6-3, 20일 6-9, 21일 5-5
6.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7일 전 10:30 설타 3층
7. 견축위원 회의: 19일 저녁 9시
8. 성서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미사 전후 회비 납부
9. 어린이 은총시장: 23일 오후 2시~5시 부모와 함께
10. 성미주머니와 제곱봉헌의 날: 19일 전 11시, 저녁 7시30분
11. 성지회 일원: 회합-합성해 부회장-김석환, 유금숙, 총무-정홍규 간사-이의탁, 최경숙, 김숙경
12. 오 밀다 수녀님 피정: 18~27일(피정기간중 기도해주세요)
13. 회의: ①일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19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대회-21일 후 3시 ④율리아, 몽승회-23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537,900원 □ 교무금: 1,895,000원